

|오늘의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_ 시 19 : 14

통 권 _ 제 310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_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2년 11월 11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신앙의 벽돌을 쌓고, 선교의 지붕을 올리는 일꾼들

- 현지에서 몸으로 섬기는 국내선교팀

주님의교회의 곳곳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베전 4:10)는 말씀을 따라,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함글함글에서는 ‘섬김의 기쁨’으로 낮은 곳을 향하는 이 숨은 청지기들을 찾아 소개합니다. 그 다섯 번째, 이 땅 곳곳의 소외된 이들을 찾아 섬기는 ‘국내선교팀’ 편입니다. <편집자>



땅끝 마을 옆, 천리 길 끝에 있는 아주 먼 곳
멀어도 아주 먼 곳 완도.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거의 네 시간을 달리면 목포에 닿는다. 영암 강진을 지나 55번 국도로 한 시간 이상을 더 달리면 해남과 완도를 잇는 완도 대교가 보인다. 바다 위로 놓인 이 다리를 건너 우회전해서, 77번 국도를 따라 잠시 가다 보면, 서북쪽으로 바다 건너 멀리 해남 달마산을 바라보는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나타난다. 침이 많아서 유래했다는 ‘갈문마을’이다. 여기에 갈문교회가 있다. 30년 전에 20여 주민들이 정성으로 벽돌을 쌓아 지은 교회다. 이 교회가 이번 여름 한반도를 스쳐간 몇몇 태풍에 큰 피해를 입었다. 교회와 사택의 지붕이 바람에 날아갔다. “당장 빗물이 정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도, 사람이 귀하니 손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간구할 따름이었지요.” 갈문교회 진충열 목사의 말이다. 요즘 대부분의 농촌마을처럼, 70여 가구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힘든 건축 일을 감당할 장정들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 땅 곳곳에서 뜻 있는 목회자들이 헌신하고 있는 농어촌 목회의 실상은, 성전의 지붕이 날아가도 손댈 힘이 없는 갈문교회와 다르지 않다. 농어촌의 삶은 날로 여위어가고, 당신들의 몸 가누기도 어려운 어르신들만 남아 교향을 지킨

다. 신앙은커녕 공동체의 터전마저도 유지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직접 찾아 몸으로 섬기는 고된 사역

“물질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농어촌교회 선교팀장인 최재규 안수집사는 태풍 피해가 없는지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가, 급기야 천리 길을 달려가 갈문교회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 “업자를 부르면 간단하겠지만, 견적이 두 배로 나오더군요.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내에서 직접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성도가 생업을 미루고 자원했습니다.” 9월 17일부터 진행된 보수 공사에는 국내선교분과 장일형 장로 외에 10여 성도가 참여했다. 마을회관에서 묵었고, 식사는 동행한 여성도 두 분이 마련했다. 혹시라도 현지 주민에게 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공사하는 동안 내내 하늘은 흐렸다. 언제 또 다시 태풍이 올지 예측할 수 없으니 마음이 급했다. 경험도 없었고, 전기공사 지식도, 장비도 부족했다. 부품을 급히 서울에서 택배로 공수하기도 했다. 공사를 마치는 데는 열흘이 걸렸다. 지붕을 보온재로 보강하고, 페인트칠도 했다. 보수공사가 끝나자, 파란 지붕에 하얀 교회가 갈문마을 언덕에 다시 우뚝 섰다. “더 이상 성전에 빗물이 들지 않는 것도 감사한 일이나, 무엇보다 멀고 먼 서울에서 내려와 직접 공사를 해주셨다는 그 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놀랍고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진충열 목사의 말은, 이제 이 땅의 교회가 지역 사회와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를 명확히 보여준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는 말씀은 마치 땅끝과 같은 오늘 의 농어촌 교회의 현실에 꼭 필요하다. 인구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 교회가 부흥하기는 쉽지 않다. 올해부터 농어촌교회 선교팀은 그동안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던 교회를 일일이 방문하고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 주민들이 줄고 있었다. 반면에 독거노인들도 많고, 노모를 모신 채 결혼을 못하고 있는 미혼남들도 많았다. 가정이 안정되지 않으니, 술과 담배, 노름이 일상적이었다. 교회가 자립하기는커녕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데 교회가 앞장 설 필요가 있었다. 지난 4월, 주님의교회에서 주관하고 미자립교회인 충북 보은의 구암리교회 등 11개 농어촌 교회 목회자를 초청해서 경남 거창의 대산교회에서 진행한 “마을과 함께하는 농어촌교회 탐방”은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농어촌교회의 목회 모델을 공유하기 위한 기획이었다. 대산교회는 메주와 간장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수익사업을 주도하여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 된 곳으로, 민들레 공동체 대표 김인수 박사의 ‘농촌 공동체’, 대산교회 허운 목사의 ‘지역과 함께하는 선교 전략’ 등의 발제를 통해,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토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협동하며 가슴과 발로 감당하는 국내 선교팀

이처럼, 이제 농어촌을 포함한 국내선교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 뿐 아니라, 교회가 지역 사회의 갈증을 풀어주고 삶의 여러 부분을 보듬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님의교회에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악기를 수집, 기증하여, 인근 학교의 재학생 120명 가운데 60명이 교회에 등록하도록 한 충남 보령의 성광교회도 좋은 사례이다.

서쪽 지역의 교회 지원을 담당하는 농어촌교회선교팀, 동쪽 지역을 담당하는 도시개척교회선교팀을 포함한

교구별 노방전도 일정		
13일 (화) : 7교구	16일 (금) : 1교구	21일 (수) : 2교구
14일 (수) : 3교구	17일 (토) : 10교구	22일 (목) : 6교구
15일 (목) : 8교구	20일 (화) : 5교구	23일 (금) : 4교구
		24일 (토) : 9교구

2012 주님의교회 미래목회 세미나
“이제는 교육선교다”
Global Mission for Christian Education
일시 : 11.19(월) 오전10시 / 중예배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참조

제3회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전교인 걷기대회 행사를 마치며

세 번째 실시하는 다문화가족과의 친목과 전교인의 건강증진 및 겨자씨모임을 활성화하고자 전교인 걷기대회가 10.27(토)에 개최 되었다. 행사 당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청한 다문화가족들, 주님의교회 교인들 그리고 걷기대회를 신청한 교인들과 함께 대예배실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행사 시간인 오전 9시가 다가올수록, 비가 오는 관계로 염려가 되었지만, 송파 다문화가족 180여명과 하남 다문화가족 40여명이 교회에 도착하자 안도를 했다. 그동안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간식을



나누어 드리며, 본당으로 안내하고, 걷기대회 참석하고자 한 교우들도 함께해 주셨다. 고등부 찬양팀의 찬양으로 이들을 맞아 주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염려를 위로하시는 격려와 환영의 말씀으로 본당에서 진행되는 걷기대회(?)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순서는 참석자 건강체크 일환으로 이종석안수집사님과 청년들의 시범으로 체조와 기본 스트레칭 및 몸풀기를 하였다. 이후 남정식집사님께서 인도하는 레크레이션 진행에 따라 송파, 하남다문화가족들과 교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후 교회식당으로 안내되어 점심식사로 준비된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평소엔 갖지 못했던 친교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잠깐의 만남 후, 헤어



짐을 아쉬워 하며 기념품 전달로 모든 행사를 행사를 마쳤다.

비록 날씨 관계로 야외에서 걷기대회 행사는 하지 못하였지만, 전화위복 되어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전교인 걷기대회 행사가 교인이 아닌, 초청한 다문화가족들이 주축이 된 행사가 진행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되었으며, 향후에도 다문화가족의 활성화된 행사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복지기획 행정팀 김병한 안수집사>

북한선교를 위한 바자회

지난 10월 27일 북한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교회 본당 1층 로비와 주차장 곳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렸다. 가을비가 예고되었기에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농어촌교회와 직거래 장터를 시작으로 수년간 이어온 주님의 교회 바자회는 이미 이웃과 교회 가족들 간에 소문난 잔치로 자리매김하여서인지 많은 비가 내리는 중에도 불편해하지 않고 즐기는 손님들로 채워져 더욱 장터 분위기가 살아나는 값진 수확의 시간이었다.

권사회에서 내놓은 각종 반찬, 김치들, 먹거리 장터의 돼지목살 숯불구이, 육개장과 해물파전 등은 비 오는 토요일의 식사와 간식으로 풍성했고, 산지직송 지역 특산물, 특상품 한우고기, 기증받은 물품, 겨자씨에서 함께 만든 도자기, 장애인 부서의 수제 천연비누 등 어느 장터보다 귀한 사랑과 정성이 넘쳐났다. 또한 예수원과 정신여고 동창회 등 협력 단체들의 질 좋고 값 싼 물건들은 이번 바자회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번 바자회는 여러 날 동안 기증 물품을 정리하며 가격표를 붙이고, 장을 보고 다듬고 씻고 만드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름없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잔치였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비밀스러운 통로로 그들의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하는 일에 이 모든 수고가 아름답게 사용될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정경혜 기자>



추수감사절 쌀나눔

1. 기간 및 참가인원 : 10/14~11/4 (4주간) / 170 명

3. 모금 : 현금 6,366천원, 현물327kg(백미)

4. 전달기관 : 하늘꿈학교(쌀30포), 춘천호스피스(쌀30포), 용인해오름의집(쌀30포), 군산신광모자원(쌀30포), 사랑나눔복지센터(쌀10포) 외 *쌀1포 : 20kg

국내선교팀은 의료팀, 법조팀, 스포츠선교팀, 군경선교팀, 교정선교팀, 주한외국인선교팀, 이미용선교팀, 기관선교팀, 국내선교행정팀, 유소년축구팀, 영어사역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영역이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마음과 진정성에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조팀의 경우 여러 선교 팀과 현장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과 상담을 지원하고, 이미용선교팀의 경우, 농어촌

교회 선교 현장과 교정선교팀이나 북한선교팀의 하나 원 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왔다.

지난 5월 전남 장성의 화산교회에서는 지역 주민 60여 어르신들에게 이미용선교팀이 염색과 파마를, 마사지팀이 발마사지를 하고, 이어서 사진팀이 장수사진을 찍어 액자를 보내드리기도 했다. 이런 진정어린 봉사가, 소외된 이들에게 교회가 소중한 정서적, 영적 중심

이 되도록 이끄는 귀한 사역이 될 터이다. 지난 7월 8일, 하나원에서 오래 봉사한 주님의교회 이미용팀의 팀장인 김영숙 권사는, 그간의 힘든 봉사를 마다하지 않은 이미용팀을 대표해 통일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멀고 먼 땅끝을 찾아 섬기는 이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귀중하게 쓰일 것일 믿는다. <편집부>

부르심의 길에 서서 _11

한 시골교회 권사님의 기도 _조광민 목사

삐걱삐걱 소리나는 마루바닥에 새벽부터 나아가 기도하셨던 할머니. 늘 앉아 기도하시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죄송하고 감사하셨던지 늘 기도하시는 자리에는 눈물자욱이 얼룩져 남아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지” 할머니는 늘 말씀하시던 것을 삶으로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 할머니는 생기지도 않았던 손자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은 손자를 허락하셨고, 그렇게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사명(?)을 받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할머니의 말씀을 따라 저를 목사로 키우기로 결심하시고, 아주 어린시절 저와 함께 남동생을 불러 앉히시고 “형은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하니, 이 집안은 동생인 니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도 역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졌고,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머니께서 서원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닌데...’라는 갈등이었고, 두 번째는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 직접적인 치료와 도움을 주고 싶은데...’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고민 끝에 신학공부를 마칠 때 쯤, 부모님 몰래 다른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공부는 잘 되었고, 마음속에 꿈꾸던 야망을 다 펼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셨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목회자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왔는데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 상황이 너무 좋았습니다.

할머니의 하나님과 약속도, 제게 주신 사명도, 부모님의 기대도 그때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인생에 그리고 집안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지만, 실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부모님의 형편이 힘들어지신 것입니다.

집안의 경제며, 아버지의 지위며, 그 당시 사랑했었던 사람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떠나고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시련에 직면하면서 별거벗은 제 자신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의욕도, 열정도, 용기도...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나약한 나였나?’ 라는 절망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수렁의 끝을 향하여 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5:8)

늘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이르러서야 변함없으시고 넘치는 그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의 기도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머니의 서원으로서가 아닌 제가 직접 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2010년 목사안수를 받던 날, 저는 드디어 참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한 시골교회 권사님, 저의 할머니 이태선 권사님의 평생에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땅끝 편지 _11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는 네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만들어 가져왔던 어머니 날 카드를 가끔 떠올린다. 거기에는 I love you because...라고 프린트된 문장 뒤에 네가 엄마를 사랑하는 세 가지 이유가 적혀있었지. 첫 번째는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두 번째는 이젠 기억도 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도 엄마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구나. <I love you because you're my mom.> 그 문장을 떠올릴 때 엄마는 많이 행복하단다. 왜냐면 내가 세상에서 들어본 가장 달콤한 말이라 생각되거든.

때로는 너를 키우는 것이 버겁게 느껴져서 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너를 보내주셨을까 원망을 하곤 했지만, 너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계기이자 통로였고 여전히 너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단다. 너는 내 속에 묻혀있는 애잔함이다. 네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증 같은 아릿함을 느낀다. 사소한 것이라도 선택의 기회가 오면 주저하고 미루며 주어진 것에 늘 만족하던 네가, 이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선택을 스스로 했구나. 그런 결정이 있기

까지 너의 고민과 아픔이 많았으리라 생각하니 참 미안하다. 너를 설득해 보려는 시도도 없이 엄마가 너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너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의 가나안이 있고, 네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의 가나안이 있단다. 내게도 그런 것을 주셨을까? 내가 과연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따위는 잊어버려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지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너를 위한 가나안으로 한 발 내딛어 보길 바란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아주 뛰어나거나 혹은 착한 사람으로서의 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 생각되는 지금의 네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신다. 엄마가 그런 것처럼. 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그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니. 하나님은 너와 나를 딸과 엄마라는 관계로 맺어주셨는데 그것이면 충분하지.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엄마도 네게 그 말을 들려주고 싶구나. <I love you because you are my daughter.>

_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김주현 집사)

2012년 함줄함울에서는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어에 기초하여 땅끝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고백하고 치유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hamletter@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실어드리겠습니다. _편집자

존귀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슬람권에서의 사역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인내와 사랑"임을 이 땅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칫 과거의 사역 경험이 근간이 될까봐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이 땅과 이 민족을 알아가고자 하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어느새 과거의 경험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우리는 인근 국가에서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들을 접하였고 더욱 겸손히 배워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중앙아시아이지만 문화도 사람들의 생각과 성격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이들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중보자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한지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사랑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태권도를 통하여, 아내는 치과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8년간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삶은 저의 모든 청춘을 바친곳인 만큼,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간혹 이곳의 문화를 내가 태어난 한국의 문화로 착각하곤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의 젊음을 보낸곳인 만큼 이 땅의 젊은이들을 향한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 관심사가 무엇이며, 미래에 대하여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함께 하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비전이요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것의 시작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스포츠로의 연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태권도의 저변확대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일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땀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3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고, 기도편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반이 육성되어 먼저는 이땅 키르기스스탄에 더 나아가서는 인근 중앙아시아와 서남 아시아에 태권도사역자를 파송하길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 수련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신 주님의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아시아에 첫발을 내딛을때부터 함께 생활하며 지냈던 많은 형제들이 어느덧 장년이 되어 각자 자기의 모양대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태권도라는 한 띠로 만났지만, 지금은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변호사로,**

의사로, 비즈니스맨으로 등등 다양한 직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태권도 분야에서는 이들과 좀더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CIS 지역에 크리스찬 태권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은비사역자가 진행하는 구강보건예방사역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깨닫게 합니다. 이동 진료를 가면, 어딜가나 치과진료는 대기이며 사람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까맣게 썩어 있던 치아를 원래대로 하얗게 수복해주면 치료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빙그레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구강보건예방사역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이년이 지나도 확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 꾸준히 할 때 이제 뭔가 좀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도, 수혜자도 참 팍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변화들을 기대하며 꿈을 꾸니다.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아자르와 엘비라도 이미 함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전문인사역자들의 바램은 늘 두가지입니다. **“전문인과 영적인 자녀 만들기”** 단순히 전문인만을 길러내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사역지에서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본국에서도 얼마든지 더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각자에게 주신 일들을 통하여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짜 이유입니다. 특히, 드러내놓고 전도를 할 수 없는 이슬람권에서는 더 많은 전문인 사역자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부터 아자르는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성경과 구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몇 구절을 펼쳐 읽기만 하여도 눈물을 주르르 흘렸지만, 마음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를 붙들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랑만이 두려움을 쫓을 수 있다고 하셨기에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더 많이 부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에게 그대로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 열방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스탄(땅이라는 뜻임). 그야말로 이 곳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더 많은 중보가 드러져 옥토가 되어야 하고, 그 옥토에 복음이 심겨져 열매 맺혀져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의 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중보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늘 중보와 사랑으로, 물질로 아낌없이 물심양면 지원해주시는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지면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함줄함을 편집부원들께도 고개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편지

〈소망의 땅에서 윤바나바, 김은비, 디모데, 요셉〉



퍼스펙티브스 선교훈련

퍼스펙티브스 선교교육은 선교를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조망함으로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의 선교신학자 랄프윈터 박사에 의해 고안된 이래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고 주님의교회에서는 248차가 됩니다. 그동안 선교이야기, 선교학교, 선교대학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선교교육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퍼스펙티브스 교육은 가장 심도있고 포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 12주 과정으로 필드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들의 강의와 찬양, 코디네이터의 강의 정리, 다양한 조별 활동과 매주 강의한 내용의 질문지 풀기, 과제물 읽기 등 다소 빡빡하게 짜여져 있지만 이 과정을 수료했던 분들 모두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되어 기뻐했다고 고백하시며 주위 분들에게 강추 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앞으로 매년 하반기에 퍼스펙티브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65분이 이 강의에 참여하시고 계시며 이분들을 위해 9분의 조장, 1분의 코디, 5명의 헬퍼 등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해외선교분과 운영인 안수집사>



미시오데이(Missio Dei) 선교찬양단의 청주교도소 방문 후기

10월 19일(금) 아침7시.. 여명이 밝아오는 이른 아침에 우리 미소찬양단은 배현성목사님과 장일형장로님을 모시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청주교도소로 향하였다. 차창너머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에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어느새 청주교도소에 도착했다. 청주 시내에 인접한 교도소는 여자재소자들만 무려 500여명이 수용된 국립 교도소이다.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 곱게 단장된 건물과 사잇길의 아기자기함이 여성스런 분위기로 정겹게 느껴졌다. 우리는 간단한 신원 점검과 유의사항을 듣고 곧바로 예배장소로 향하였다. 가까이 들려오는 찬양소리에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잔잔한 흥분은 나를 감동시켰다. 얼핏보기에 갓 스물을 넘긴 듯한 풋풋한 소녀부터 외국인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성원은 다양했고, 약 400여명이 참석한 예배 분위기는 매우 뜨거운 성령 충만한 분위기였다. 푸른 죄수복 위

에 단정하게 가운을 차려 입은 찬양대원도 눈길을 끌었다 배현성목사님의 설교로 시편(31:1~14)의 성경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주제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 하시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은 내 하나님 이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실 때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너무나 진실되고 간절하여 가슴이 저며 오기도 했다.

이어서 우리 미소 찬양이 시작되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여 ‘거룩 거룩 거룩’에 이르기까지 무려 11곡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때 마다 눈물과 환호와 기립 박수에 우리 모두 함께 성령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주님사랑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것을 알았다. 찬양 후 나오는 발길에 손을 내밀며 눈물을 보이던 그 자매님들과 유모차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를 잊을 수가 없다. 그 순간 울적한 마음을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 올려 드리고 함께하시



기를 기도하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끝으로, 부족하지만 합하여 선을 이루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미소선교찬양단의 지휘자님을 비롯한 대장님, 그리고 수고하시는 대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선교찬양대 소프라노 조정에 집사>

인생역전의 복음 (성극팀 여주 교도소를 방문하며)



이제는 겨울을 불러들이는 날씨가 찾아옵니다, 10월 하순이니 추워지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가을을 만끽하기도 전에 찾아온 추위가 아쉽기는 하지만 하얀 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쉬움을 가림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따스한 사랑은 너무 깊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은혜로워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곳 여주 소망 교도소를 10월 28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극팀은 “어느 자매이야기”라는 연극을 공연하였습니다. 언제나 따듯한 배려와 관심으로 정감

이 넘치는 소망교도소에서 재소자와의 만남은 오랫동안 준비한 짧은 연극을 가지고 그분들과 마음을 함께 하였습니다. 연극 중간에 중창단의 합창은 재소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습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여러 분들에게 모든 감사를 드리며 함께한 모두들 삶이 복되고 주님의 평화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성극과 찬양과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재소자 한 분한 분이 소망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연극 공연을 한다는 것 정말 상상도 못해보았습니다. 연극을 공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은 버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순간은 고난이요 힘겨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신 은혜였음을 체험하기를 바라며 복역하는 시간 속에서도 바로 서 있기를 기도 드렸습니다. <성극팀 손경숙 권사>



주님의교회 25년사를 편찬중입니다

1988년 창립된 주님의교회가 2013년에 창립 25주년을 맞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이른 주님의교회의 지난 25년을 정리하는 <주님의교회 25년사>의 편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료를 펴내는 데에는, 성도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1. 지난 25년간의 교회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 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등 교회학교의 연간 계획서와 보고서
- 교인수칙, 나눔의소식, 구역소식지 등 초기 교회의 여러 커뮤니케이션 자료
- 사진 자료 (촬영 날짜와 배경 등 사진 설명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2. 함께 이 뜻깊은 사역에 참여해주실 봉사자를 구합니다.

- 역사 자료를 정리하여 기초 자료를 만들어 주실 성도
- 편찬 과정에서 원고의 교열과 교정을 도와주실 성도
- ▶ 문의: 담당 교역자 이강찬 목사 (010-2243-4420)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청년 12단계 집중강의

박원호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12단계 집중강의 토요일이 10월 6일(토) 개강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강의는 2008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이루어졌던 12단계 성경공부를 9개월간 집중하여 배우는 것으로, 특별히 토요일은 청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 12단계 집중강의는 청년리더 및 겨자씨 멤버들, 일반성도 등 120여 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며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강의는 청년들이 담임목사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주님의 교회 전체 흐름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2단계 집중강의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 신학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갖추어가길 소망합니다. <청년부>



즐겁고 신난 놀푸른대학 가을나들이 기행



손꼽아 기다리던 놀푸른대학 가을나들이의 날. 어제 종일 내리던 가을비가 그치고 구름 한 점 없는 파아란 코발트 빛 가을 하늘이 너무도 시리고 아름답다. 마치 유치원 아가들같이 삼삼오오 들뜬 표정에 놀푸른대학 어르신들이 제법 수다스럽다. 오늘의 나들이 일정 소개에 이어 권대선 목사의 축복기도로 일행 140여명은 10시 반에 출발하였다. 차 내에서 서로 인사들을 하느라 바쁘고 왁자지껄 얘기꽃이 피기 시작한다. 영락없는 유치원생 나들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버스가 호암미술관 경내로 진입하니 ‘와아!’ 한없이 푸르른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가을 하늘 아래 청청한 소나무 사이로 노오랑고 빨강고 자주색으로 물든 단풍이 한없이 곱디 곱고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 사이를 누비고 다니는 어르신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들이 함께 어울려 한 폭의 그림으로 묻어난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 번이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모습을 보시고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것만 같다. 아래로 푸른 호수를 내려다보며 잔디밭에 둘러앉아 즐거운 점심이 시작되었다. 날이 약간 차갑지만 가을 햇살로 등이 따뜻하기만 하다. 맛칼스럽게 차려진 부페 상에서 제법 수북이 떠온 밥그릇들을 비우면서, “많이 많이 드세요.” 하니, “예, 밥맛이 그만이네요. 나오기를 참 잘했네요.” 하신다. 잠자던 입맛들이 살아나 더욱 식욕을 당기는 가 보다. 식사가 끝나자 일행은 주정(主庭) 연못의 약간은 사들은 연 잎 무리를 보며 축대를 걸어올라 호암(湖巖)미술관으로 이동하였다. 전통 정원에는 소나무, 매 난 국죽과 자생초들이 곱게 물든 가을 단풍으로 그지없이 아름다웠다. 사진을 찍으며 “김치이~ 하나 둘 셋, 찰칵!” 아쉬운 마음들을 달래며 가을 나들이를 마무리하였다. <놀푸른대학 탁구반 왕진무>

한국호스피스 협의회 추계 학술 세미나

한국 호스피스 추계 학술세미나가 11월 3일 주님의교회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600여명의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참석하여 ‘호스피스팀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말기 암 환자들 돌봄에 대해 새로운 강의를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맑고 좋은 날씨 속에 함께하는 즐거움과 수고를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200시간 넘게 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호스피스 인증시험에 응시하여 소명의식을 더 느끼며 환자분들과 함께 숨을 쉬며 사랑하는 마음 사라지지 않고 간절한 소통의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드렸다. 처음으로 주관하는 전국대회 행사에 많은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수고로 무사히 치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호스피스 사역팀 왕명숙 권사>



구역 소식



10월 28일(토) 북한선교 바자회가 열리는 제3 집회실 한쪽 코너에 (2-13 두로)겨자씨 가족들이 만든 도자기가 전시되었다. ‘십자가 사랑’ 테마로 십자가 목걸이, 커피 드립퍼, 화분, 각종 그릇과 소품 등 150여점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성황리에 판매 되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바자회의 선한 뜻에 동참하고자 시작한 이 일은 교구 내 도예공방을 운영 중인 재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 졌다. 도자 흙을 처음 만져보는 10여명의 겨자씨 식구들은 반 년 여에 걸쳐 초보 작가의 예술혼을 태웠고 그 열정은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거듭났다. 토기장이가 되어 흙을 빚고 굽는 동안 참여자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과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판매된 도자기의 수익금은 재료를 제외하고 전액 북한선교기금으로 기부되었다. <신형섭 기자>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省察(성찰)

가을은 收穫(수확)의 기쁨에 대한 感謝(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를 省察(성찰)하는 계절이기도하다. 짧게는 한 해를 돌아보고 길게는 주님의교회가 걸어온 24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省察(성찰)의 의미를 詳考(상고)해보자.

辭典的(사전적)의미

자신이 한 일을 돌아켜보고 깊이 생각함.

聖經的(성경적)의미

자기 양심을 살피 지은 죄를 생각해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일.

文字的(문자적)의미

★省(살필 성, 줄일 생) : “작거나 적어서 무시할만하다”의 뜻을 지닌 少(적을 소, 줄을 소)에 “보다”의 의미가 있는 目(눈 목)을 합쳐 『작거나 적어서 무시할만한 일일수록 눈여겨 살펴야한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큰 사고의 원인이 사소한데 있음을 말한다. “줄이다”의 뜻으로는 省略(생략)이라는 단어가 있다.

★察(살필 찰) : “집이나 지붕을 뜻하는 宀(집 면, 갓머리)과 祭(제사 제)가 결합하여 『집에서 제사지낼 때는 준비절차를 잘 살펴야한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